

'K-국악' 전도사들, 고국에서 '신명난 한 판'

남도국악원 24일 20주년 특별공연 미국·러시아 등 해외단체 초청 부채춤·사물놀이 등 전통예술 선사

세계 속에 한국의 전통예술을 전파하고 있는 '예술 전도사'들이 국립남도국악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다. 미국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운무용단, 에스토니아 탈린 아리랑무용단 등에서 활동하는 34명 예술가들이 전통의 신명을 선사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남도국악원)이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특별 초청공연 '한국을 가슴에 품다'를 오는 24일 오후 3시 국악원 전야당에서 펼친다.

국악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은 24일 남도국악원을 비롯해 21일(오후 7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 28일(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총 3회 진행되는 연속 기획이다.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해외동포 및 재외(在外) 국악 단체를 초청해 한국적 멋의 진수를 선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 출연진이 함께 펼치는 '여는곳'으로 공연의 막을 올린다. 이어지는 '부채춤'은 러시아 땅에 정착한 고려인 재외동포 4, 5세대 등이 활동 중이며 '러시아 최초의 한국전통 무용단'으로 알려진 소운무용단의 몫이 맡는다.

러시아 전통놀이 맥(이하 맥)이 선사하는 '사물놀이'도 흥을 돋운다. 이들은 북, 장구, 소고, 쟁과리의 장단은 물론 상모돌리기 등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모스크바 원광학교 사물놀이반으로 불렸던 '맥(МЭК)'은 2014년 공식 창단해 모스크바 제트스카야 비빌리오체카 부속 공연



에스토니아 아리랑 무용단이 '매향무'를 추는 장면(왼쪽)과 러시아 소운 무용단의 '부채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장 등에서 단독공연을 펼친 바 있다. 아울러 형가리에서 활동 중인 단체 민들레도 사물놀이의 구성진 가락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에스토니아 탈린 아리랑 무용단의 '매향무'는 봄의 전령사인 '매화'를 매개로 여인의 기품과 인내를 시각화한 무용이다. 시경의 한 구절인 '매경 한고발정향'에서 그 이름을 착안했으며 여인의 고결함, 꽃의 생명력, 봄의 희망 등을 춤사위에 담았다.

매향무 몫짓은 보통 '부채 입춤' 형식으로 전해진다. 한복이나 당의를 입고 보여주는 유려한 동선, 발끝에서 묻어나는 동양의 정취와 즉흥적인 춤사위가 관객들을 매료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NYKPAC)의 '소고춤'도 볼거리다. 한국의 민속무용인 소고춤은 농악에서 소고치배들이 추거나 교방 입춤 등에서 전하던 것에서 유래했다. 보통 판굿에서는 뒷배(배경 가락)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며 고깔을 쓰고 발삼까기, 꾸리북, 좌우치기 등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춤이다.

비영리 단체인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는 지난 30년간 제이콥스 필로우, 내셔널 포크 페스티벌, 메트 뮤지엄 등 다양한 미국 기관에서 초청 공연을 통해 한국문화를 홍보해 왔다. 이 밖에도 매년 가을 밤의 정취를 전하는 국악대잔치, 뉴욕주립대 퍼처스 칼리지 퍼포밍 아트센터 공연 등 해외 무대에서

한국적인 멋을 알리는 '점령' 역할을 맡아 왔다.

정보영 학예연구사는 "남도국악원이 2006년부터 진행해 온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 연수'에 참가했던 85개 단체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5개 단체를 초청해 무대에 올린다"며 "관객들이 부채춤, 사물놀이, 매향무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여름밤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악원의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 연수' 사업에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19개국 85개 단체, 총 2198명이 참가했다. 무료 관람, 국악원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미소 부르는 '꽃소녀'

동구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 김해성 작가 '꽃소녀' 전 이달까지

순수하고 낭만적인 화풍 그리고 맑은 영혼들의 이야기.

김해성 작가의 '꽃소녀' 전을 보면서 떠오른 단상들이다. 작품은 언제 봐도 편안하면서도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한다.

동구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 1층 별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무더위의 짜증과 답답함을 밀어낸다. 한아름 꽃을 든 소녀가 밝은 웃음으로 관객들을 맞이 때문이다.

'꽃소녀-작은 SKETCH'라는 주제처럼 소녀들은 모두 꽃으로 지장을 했다. 머리에도 화관을 쓰고 있고 옷과 치마에도 화사하면서도 예쁜 꽃가지가 걸치고 있다. 그뿐이랴. 꽃바구니를 들고 알록달록한 꽃 모양의 구두를 신고 있다.

소녀는 꽃으로만 장식된 것은 아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새와 나비, 이름 모를 곤충들의 모습도 보인다. 양중맞은 새는 부리에 하트 모양의 꽃을 물고 있다. 저마다 생명체들은 '따로 또 같이' 하나의 화폭을 구성한다. 소녀와 생명체들은 물아일체의 관계처럼 조금의 거리감이 없다.

가볍게 쓱쓱 스케치를 한 듯한 경쾌한 묘사는 작가의 내면에 자리한 동심의 발로일 게다. 작가는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꽃 같은 세계'를 추구하는 것일 테다.

특유의 환상적이면서도 리듬감이 느껴지는 화풍은 이번에도 여전하다. 유하고 동글동글한 선은 일상의 무료와 무더위에 지친 피로를 잠시나마 잊게 한다.

김해성 작가는 "유난히 무더웠던 이번 여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꽃소녀'가 밝히는 밝은 미소와 동화화 같은 세상이 건네는 위안을 잠시나마 느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작가는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32회 개인전 개최를 비롯해 웰아트 페어, 아트베이징 등에 참여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의병 문서' 100년만에 귀향

최익현 편지 등 13건...헌병경찰 탄압 '생생'

구한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저항했던 의병들의 문서와 편지가 광복절을 앞두고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최근 국내로 들어온 '한말 의병 관련 문서'와 '한일관계사료집(韓日關係史料集) - 국제연명제출 조일관계사료집'을 공개했다.

한말 의병 관련 문서는 1851년부터 1909년까지 작성된 문서 13건을 아우른다.

13도 창의군에서 활동한 허위-이강년(1858~1908) 등이 남긴 글과 위정척사론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항일 의병 운동을 이끈 최익현(1833~1906)의 편지 등이 담겼다.

의병들이 남긴 기록은 2개의 두루마리에 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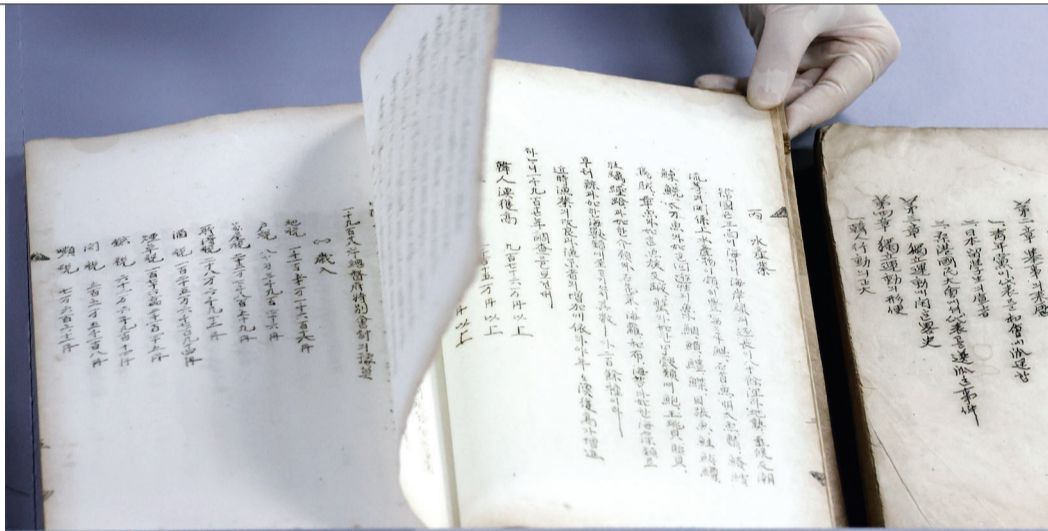
있다.

자료를 이어 붙인 뒤 각각 '한말 일본을 배격한 두목의 편지', '한말 일본을 배격한 폭도 장수의 격문(檄文-선동하거나 불의에 대한 분노를 고취하고자 쓴 문서)'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완전히 펼쳤을 때 가로 길이가 각각 406.5cm, 569.5cm에 달하는 자료다.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두루마리 첫머리에 쓴 글과 전문가 견해를 토대로 일제 헌병경찰이었던 개천장치(芥川長治)가 자료를 모은 뒤, 1939년 8월 지금의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박민영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천장치는 1930년대 만주국 훈장을 받기도 한 헌병경찰로, 독립운동을



국외에서 환수된 '한일관계사료집'.

탄압하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연해주 일대에서 항일 의병 투쟁을 주도한 의병장 유인석(1842~1915) 일가 시문집을 만드는 현장을 급습한 뒤 '다수의 불온 문서를 압수'했다고 기록한 부분은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연합뉴스

지역 영화 비평 '썬1980' 18호 나왔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발간 광주독립영화제 소식 등

지역 영화선과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만든 영화 전문 비평지가 나왔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최근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영화 비평지 '썬1980' (편집장 정찬혁) 18호를 발행했다. 이번호에는 지난 6월 막을 내린 '제13회 광주독립영화제', '2024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소식을 비롯해 광주독립영화관 서포터즈인 '이글루' 등 소식이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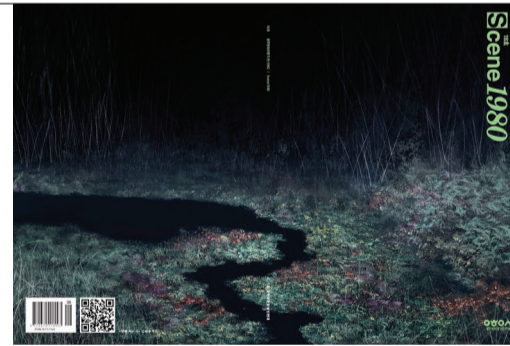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의 김경자 감독과 나눈 인터뷰 '기억의 끝에는 기억하는 얼굴이', '내 이름'을 연출한 송원재 감독의 영화 촬영 과정과 사유를 담은 '딤포커스' 코너도 담겼다. 이경민 코디네이터가 쓴 '새롭고 낯선 영화문화를 찾아서', 윤재경의 시네마틱 뷰 '앵남의 여름'도 읽을거리다.

정찬혁 편집장은 "지역 영화정책 배지화 이후 지역의 생태'라는 주제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을 현장 스케치한 글을 수록했다. 이 밖에

강소희가 쓴 '다음 소희', 박진수의 '녹색 광산', 이흥규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 박지훈의 '이시네린의 벤치' 등 영화비평문도 흥미롭다.

한편 이번호 표지는 정다은 감독의 '땅에 쓰는 시'를 모티브로 그린 광주 출신의 청년작가 김유나의 그림이 실렸다. 관객 참여형 코너인 '픽 앤 리슨'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감상평도 확인할 수 있다. 감상평은 썬1980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광주독립영화관 관람권(2매) 증정.

정찬혁 편집장은 "이번 18호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영화 지원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는 지역영화인들의 소식을 담았다"며 "'클로즈업', '딤포커스' 코너에서는 신작 '진달래 꽃



을 좋아합니다'로 돌아온 김경자 감독의 인터뷰와 송원재 감독의 작품론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책과 생활, 소년의 서, 동명책방 꽃이피다 등 배포.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무료 열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